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성경말씀: 고전15:7-10

시간이 살같이 빠르게 지난다. 찬송가 318장 3절

삼하14:14, 우리는 반드시 죽으며 땅에 쏟아진 물 즉 다시 모이지 못하는 물과 같다.

1959년 출생, 1988년 5월 이맘때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벌써 22년이 지났다.

그런데 큰 아이가 다 커서 시집가고 엇그제 5월 21일에는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치과의사가 되었다. 둘째도 졸업하고 셋째도 졸업하고 참으로 감격스럽다.

가만히 과거를 돌이켜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복에서 나온 아버지, 조실부모 어머니, 가난하기 짝이 없는 가운데 아들 셋을 키우느라고 애를 썼다. 너무 가난해서 밑의 동생 하나는 아픈데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 곧 죽고 아버지가 산에 묻고 왔다. 콩나물 장사, 잡화 가게, 고추 가게, 연탄, 식당 등.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아들 셋을 키워 다 대학 졸업시키고 결혼해 내 보냈다. 1982년 9월, 22살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캐나다로 유학 갔고 83년 결혼하고 85년에 미국에 갔다. 첫 아이를 낳을 때 양수가 터져 아이가 1달 먼저 나왔다. 캐나다의 12월 영하 30-40도의 날씨, 차도 없이 걸어 다녔다. 아파트 값 널 돈이 야반도주해서 미국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공부하면서 미국 표준연구소에 다니게 되었고 교수생활도 4년 하다가 1992년부터 모교에 와서 가르치고 있다.

성경 문제로 인해 고민하다가 결국 성경을 번역하게 되었다.

교회로 인해 엄청나게 고민하고 해매다가 결국 교회를 하게 되었다.

교회를 못하게 돼서 실망하고 낙심했다가 다시 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알리고 있다. C3TV를 통해 알리고 있다.

그 동안 하나님이 세 딸들 잘 자라고 공부하게 해 주셨다. 좋은 사위를 주셨다.

결혼 이후 집도 수십 차례 옮겨 다녔지만 지금은 과분한 집을 주셨다.

차도 수십 대 타 보았다.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데 거의 다 다녀보았다.

학술상도 타고 연구비도 많고 강의평가도 좋다.

성격도 이전에 비해 많이 유순해졌고 이해심도 조금 더 생겼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날이 갈수록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

요즘도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 큰 아이가 진 빚이 15만 달러, 둘째가 4만 달러 등 빚 투성이다. 내가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고 살다가 지은 빚도 있다. ★★★

그래도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건강해서 감사하며 아내가 같이 해 주어서 감사하다. ★★★

아내가 고쳐야 산다고 하면서 말이 많아 힘들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

돈 걱정하다가도 “결국 갈 때 다 두고 갈 텐데 뭘 걱정하나”하니까 편안하다.

앞으로 두 아이들 주님께로 이끌고 가면 할 일 다 하고 간다. ★★★

성경 문제, 교회 문제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다.

왜 이런 것을 밝히는가? ★★★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과 인터넷 등을 통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꿈이 하나도 없었다. 죄와 이기심 투성이였다. 젊은 날의 욕정들을 생각하면 부끄럽기 한이 없다. 아내와 다투고 지낸 일들, 다른 이들과 화합하지 못한 일들, 화를 벌컥 내며 참지 못하고 지낸 일들 생각하면 고개를 들기 어렵다.

그래도 고전15:10대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

나의 속중심의 확신: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놓지 않는다. 내 아버지의 믿음은 놓지 않는다.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이것을 간직하려고 노력했다. 열심히 일했다(잠22:29; 전9:10)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은혜로, 은혜로 이끌어주셨다. ★★★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

1. 은혜란 무엇인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성경에 170번(39, 131회) 나온다. 창세기 6장 8절(노아 사건), 계시록 22장 21절 사도 바울의 서신서(롬-히)에만 99회 나온다. 서신서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푸시는 호의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 은혜와 행위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에게서 온다.

요1:15-17, 침례자 요한의 증언, 내 뒤에 오시지만 나보다 먼저 오신 분이 있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주어졌다. 구약도 은혜, 율법도 은혜, 그것을 대체하는 은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 특히 아브라함: 모두 은혜의 산물

2. 바울의 은혜

고전 15장 부활 장에서 그는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복음의 핵심 목표인 부활 설명 그리고 다수의 부활의 증인들 열거, 그리고 자기를 언급함

1. 때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유산한 자(먼저 날 수도 있고 늦게 날 수도 있다). 힘없고 나약한 자
2.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 다른 사도들은 생전에 주님을 보았다. 자기는 다마스쿠스 길에서
3.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않은 자, 교회를 핍박하였다.

행9:1,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성도들을 핍박하였다.

빌3:5-6,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세상에서 가장 잘난 자, 가장 투철한 종교인 스테반을 죽이는 일에 동의하고 웃을 맡았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모세의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듣고는 분개하였다.

유대인 이단자 색출에 나섰다. 딤후1:13-14

4.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지금의 내가 되었다(10절).

지옥으로 향하던 자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

마귀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사역자가 되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 받으며 하늘의 보상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예수님과 온 우주와 영계의 세상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가 되었다.

5. 바울이 한 일이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었다. 이것이 은혜다. ★★★ 무지한 가운데 열심과 열정만 가지고 일했다.

그 결과는 자기 생각과는 정반대로 하나님과 싸운 것이었다.

행9:5, 가시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네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이런 데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았다.

우리는 어떤가? ★★★

3. 은혜의 결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1.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사람

자유로운 자가 되었으니 방탕해도 된다. 놀고먹자. 무법이다. No.

2.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 은혜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되어 있다.

고후11:22-30

더 많이 섬기게 되어 있다(고전9:16). 유치한 자랑 안 한다. 말 조심 한다.

3. “그러고도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한다.

4. 그래서 태어난 것도 은혜(한국....무슨 조건에서든),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 구원받은 것도 은혜, 배우자를 만난 것도 은혜, 킹제임스 성경, 사랑침례교회, 옆의 목사와 성도들, 인터넷, 죽을 때도 은혜 ★★★

4.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